



## 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신	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 담당 박찬식 운영위원장(010-7276-0997) 박진우 사무처장(010-5301-3866),
제목	제주4·3 70주년 범국민위원회 출범식 보도 요청
날짜	2017년 4월 9일

-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4월 8일 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다음과 같이 보도를 요청합니다.

### 제주4·3 70주년 범국민위원회 공식 출범

각계인사·단체 총망라…50주년 후 20년만 범국민위 조직

진상규명, 제주4·3특별법 개정, 미국의 사과, 정명(正名) 등 과제 해결위해 연대  
50주년엔 4·3특별법 제정 등 성과…70주년엔 평화와 인권의 상징 자리매김돼야

제주4·3의 진상규명과 전국화·세계화 등의 역사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계가 참여하는 제주 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가 8일 공식 출범했다.

이날 오후 2시 서울시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70주년 범국민위 출범식에는 제주4·3의 울퉁은 자리매김을 위한 각계의 발길이 이어졌다.

지난달 열린 70주년 범국민위 대표자회의에서는 이미 양윤경(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허영선(제주4·3연구소 소장), 김영주(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박용현(한국전쟁유족회 공동대표), 백미순(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정연순(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주진오(상명대 역사콘텐츠학과) 교수가 상임공동대표로 추대했다.

또 고문에는 원희룡 제주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 강내희 중앙대 명예교수, 안병욱 가톨릭대 명예교수, 강요배 화백, 강우일 천주교 제주교구장, 김시종 재일 시인, 김정기 전 서원대 총장, 도법스님, 문정현 신부, 문무병 전 제주4·3연구소장, 서승 리츠메이칸대학 특임교수, 신경림 시인, 이이화 동학재단 이사장, 채현국 효암학원 이사장, 현기영 선생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국회의원 고문단에는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까지 원내 5개 정당이 함께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김수열 제주작가회의 회장과 박찬식 육지사는 제주사름 대표가 운영위원장으로 역할을 하며 이재승 건국대 교수(정책위), 이영권 제주역사교육연구소장(학술위), 배인석 한국민예총 사무총장(문예위),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대외협력위), 서중희 민변 과거사위원장(법개정특

위)은 전문위원회 활동을, 박진우 경기대 교수가 사무처장으로 각각 역할을 한다.

참가자들은 20년 전인 지난 50주년 범국민위원회가 제주의 아픈 역사를 알려내고 역사적인 제주 4·3특별법 제정에 큰 역할을 했다면 이번 70주년 범국민위는 평화와 인권의 상징으로 제주4·3이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를 위해 제주4·3의 역사를 알려내는 전국화, 세계화와 함께 미군정 당시의 대규모 학살에 대한 미국의 공식 사과,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정부의 배·보상 등과 함께 제주4·3특별법 개정과 제주 4·3의 정명(正名)을 위한 ‘진상규명의 계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70주년 범국민위는 ‘국민들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우리 현대사의 출발점에 바로 제주4·3이 있다. 국가의 1차적인 존재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인데 70년 전 제주에서는 국가의 이름으로 3만여명 이상의 국민을 학살하는 대참극이 벌어졌다”며 “물론 제주4·3의 아픈 과거를 청산하고 치유하는 데 일부 진전이 일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까지의 명예회복은 과거청산과 치유의 근본인 ‘정의’가 빠진 말뿐인 명예회복이 었다”고 규정했다.

이어 “4·3은 청산돼야 할 아픈 역사일 뿐 아니라 계승돼야 할 역사로 단순히 1948년 4월3일의 봉기가 아니라 해방이후 스스로 지역공동체를 일구고 분단에 반대하며 통일된 나라를 세우고자 싸웠던 과정 전체를 지칭한다”며 “내년 70주년을 앞두고 국가의 잘못으로 인한 아픈 역사를 정의롭게 청산하고 4·3의 정신과 교훈을 되새기며 정의와 인권, 평화와 통일의 나아가는 데 모두 함께 나서 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치권과 시민사회계, 학계 등 국내외 모든 세력과 연대해 제주4·3의 남겨진 과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온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70주년 범국민위 상임공동대표인 양윤경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은 “대비극의 절대적 가해자와 국가와 배후세력인 미국은 후안무치”라며 “제주4.3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정부의 책임, 미국 책임을 당당히 묻고 명예를 반드시 회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양 유족회장은 “그 긴 세월동안 이뤄놓은 것이 더없이 미약하고 죄스러운 마음이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을 위해 70주년 범국민위원회가 출범됐고 앞서 50주년 범국민위원회의 거룩한 행보에 이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흔들리지 않은 용기와 열정을 이어나갈 수 있었으면 하다”고 강조했다.

#### □ 주요 참석자 명단

양윤경(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김영주(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박용현(한국전쟁유족회 공동대표), 백미순(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정연순(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주진오(상명대 역사콘텐츠학과 교수),허영선(제주4.3연구소 소장)을 비롯한 상임공동대표를 비롯한 150여명

#### 참석자 명단 일부(무순)

##### ○ 제주43희생자유족회

양윤경 유족회장, 현봉환 내무부회장, 양성홍 사업부회장, 김광우 감사, 한하용 제주시 지부회장, 이중흥 행불인유족회 협의회장, 김창범 청년회장, 오정희 부녀회장, 양성주 사무처장, 강근혁 홍보팀장,

##### ○ 고문 : 이이화 동학농민재단 이사장,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 박창욱 전 유족회

장, 4.3위원회 중앙위원), 김홍식(명지대 명예교수),

○ 국회의원 : 2명 강창일, 위성곤(가나다 순)

○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허영선 제주43연구소장, 강정효 상임대표(제주 민예총 이사장), 김수열 범국민위 공동운영위원장, 강호진 공동집행위원장, 양동규 문화예술위원장, 조미영 학술위원장, 최상돈님, 노무현재단 양영길 운영위원(제주문화포럼 이사장)

○ 수도권 및 부산 : 6명 김종세(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상임이사), 김영주(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박용현(한국전쟁유족회 공동대표), 백미순(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정연순(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주진오(상명대 역사콘텐츠학과 교수)

○ 범국민위

- 정진우(목사, KNCC 인권센터 소장), 이재승(건국대 법학과 교수), 배인석(한국민예총 사무총장), 서중희(민변 과거사위원장), 염형철(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제주도민회 : 강위균 상임부회장, 강성택 총무부장, 강법선 서울제주시향우회 회장, 서울제주도민회 현우종 편집위원장, 서울한경면민회 고승태 회장,

○ 제주사회협의회 : 양한권, 김영철,

○ 제주43평화재단 : 강창보 사무처장, 오승국 기념사업팀장, 조정희선생님

○ 제주도의회 : 김천우 전문위원, 강덕환 전문위원

○ 제주도청 : 윤승언과장(운영유팀장?), 김미선 주무관, 김용철 학예사

○ 문화예술인 : 문영선 문화예술 기획가, 최화정 작가, 정기엽 설치미술가, 김금숙 화가(지슬 만화, 그림책 '애기해녀 옥랑이 미역 따러 독도가요') 고운숙 화가, 고명철 교수

○ 역사학연구소 정일영 사무국장, 한국민예총 고승화 이사장, 환경정의 김홍철 사무처장, 충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정지성 이사, 수원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김영균 운영위원장, 장완익 변호사, 전태일노동대학 이용희 실장, 한국교육연구소장 김육훈, 전국역사교사모임 김태우, 전교조 이경희 실장, 민화협 권호창 공동의장, 4월혁명회 손병주, 참교육학부모회 송환웅, 아이쿱협동조합 김형미, 노동자역사 한내 양규현, 서울시의원 강성언(제주), 미술가 김금숙, 고운숙. 허상수 재경유족회장, 이철 민청학련 기념사업회장, 현기영 소설가.

## □ 주요인사 말씀

### 1. 양윤경 유족회장 추모사

=대비극이 절대적 가해자와 국가와 배후세력인 미국은 후안무치다. 제주4.3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국가와 미국 책임을 당당히 묻고, 명예를 받드시 회복해야 한다. 대한민국 평화와 인권 자리매김돼야 하며 제주4.3 숭고한 가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다 무심한 세월은 70년 흘러. 그 긴 세월 이뤄놓은 것이 더없이 미약하고 죄스러운 마음이다. 오늘 지난 4.3의 길을 계승하고 미결 과

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70주년 범국민위 출범했다. 거룩한 행보이고 오늘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용기와 열정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2. 주진오 교수

=4.3은 국가에 의한 제주도민 학살이다. 민간인학살. 국가 대표 반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주인행세. 국가가 추념 격상 의미있지만 거기서 가해자 대표해서 온 사람 반성하지 않은 태도 안타까움 4.3추념식의 주인공은 유족이다. 유족들이 서울에서 내려온 정치인, 관료들 뒷전에 앉은 모습 가슴아프다. 4.3이 제주도민만의 비극이 아니라 현대사 비극이고, 반드시 계승하고, 앞으로 되풀이되지 않도록 모든 국민들이 생각하고 마음속에 새겨야 할 일이다 범국민위 출범이유다. 앞으로 70주년 기념 주제는 제주 기념사업회. 범국민위는 서로 연락하면서 전국화.세계화하는데 역학 수행 앞으로 과제이다. 작은 힘이지만 열심히 보태겠다.

## 3. 김중배

= 50주년 사업 때, 왜 4.3은 이름이 없는가였다. 그 이름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명을 찾기 위해 4.3의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이 나라 갈라지지 않는 소망이 있다. 그 소망 이뤄야한다. 세월호 2014년 4월16일 3년이 되도록 되풀이됐다. 4.3은 어떤가? 4.3은 지금도 되풀이되고 있다. 4.3의 달력은 진전되지 않고 있다. 주제넘게 격려하는 자리에 섰지만, 야만적인 역사. 시간의 정체의 역행은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다. 세계 인류에게 사람다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한 이정표로 가슴속에 각인. 이뤄내야. 4.3 원혼들이 해원하는 갈라지지 않는 하나된 민주국가 시발점이 됐으면 하는 소원이다.

## 4. 강창일

= 미국책임, 배보상 못했다. 유골 제주 전역. 정부가 해야 한다. 70주년에는 축배를 들면서 해단식을 해야. 국회의원. 20대 국회. 300명 중에서 고마운 게. 메시지만 보냈더니 120명 동참. 빠른 시일내에 대선 끝날 때까지 180명 모아내겠다.

2. 내년이면 제주4.3 7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 동안 제주4.3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에 상당한 성과가 있었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에 아픈 역사의 정의로운 청산을 완수해 나가고자 지난 3월 24일 사회각계 단체와 인사들이 참여하는 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를 출범식을 귀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보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ps .아래 행사 내용과 순서, 자세한 내용, 사업방향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주4·3 제69주년 기념식 및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 출범식

때: 2017년 4월 8일 14:00  
곳: 서울시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

\* 첨부

1. 제주4·3 제69주년 기념식 및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 출범식 행사사진
2. 제주4·3 제69주년 기념식 및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 출범식 홍보리플렛

### 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 상임공동대표

양윤경(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허영선(제주4.3연구소 소장), 김영주(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박용현(한국전쟁유족회 공동대표), 백미순(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정연순(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주진오(상명대 역사콘텐츠학과 교수)

# 제주4·3 제69주년 기념식 및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 출범식

때: 2017년 4월 8일 14:00

곳: 서울시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

<순 서>

□ 식전 행사

- 4.3다큐멘터리 영상

□ 본 행사(사회: 박진우 사무처장)

- 참석자 소개
- 경과 보고: 강정효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집행위원장(제주민예총 이사장)
- 제주4.3 제69주년 추모사: 양윤경 상임대표(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 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 출범사: 주진오 상임대표(상명대 역사콘텐츠학과 교수)
- 격려사: 고문(약간명)
- 기념 공연
  - 노 래 : 권우경(얼굴, 영웅, 뮤지컬 배우)
  - 판소리 : 현 미(심청가중 심봉사 눈뜨는 대목, 소리꾼)
  - 시낭송 : 김수열(시인)
- 4.3범국민위원회 사업 방향과 계획 소개: 박찬식 운영위원장
- 임원 소개
- 국민에게 드리는 글: 상임공동대표단
- 마무리 공연: 최상돈(가수)
- 폐회

## 경과보고

- 2016. 11. 26. 제주4.3유족회 사무실에서 4·3 70주년 관련 회의
  -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를 결성하기로 하고 준비위원회 구성.
- 2017. 1. 18. “제주4.3 70주년,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제주토론회 개최
  - 70주년 사업의 방향에 대한 토의와 더불어 범국민위 구성 필요성 제기
- 2017. 2. 7.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제주위원회) 결성
  - 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 결성 추진 결의. 각 단체에 제안 시작.
- 2017. 2. 20. “제주4.3 70주년,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서울토론회(국회)
  - 제주4.3 70주년 범국민위원회 결성을 제안하고 결의를 모아냄.
- 2017. 3. 1. “3.1절 제주도대회 70주년 기념식 및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제주위원회) 출범식
- 2017. 3. 4. 제주4.3 70주년 범국민위원회 추진을 위한 실무준비 워크숍(‘육지사는 제주사람’ 주관)
- 2017. 3. 24. 제주4.3 70주년 범국민위원회 결성 대표자회의 및 박원순 서울시장 면담
- 2017. 4. 2. 민주화 기념 및 계승 사업 관련 단체 간담회
- 2017. 4. 3. 제주4.3 제 69주년 추념식 참석

## 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 고문 및 임원

### ○ 고문

강내희(중앙대 명예교수), 강만길(고려대 명예교수), 강요배(화백, 전 제주4.3연구소 이사장), 강우일(주교, 천주교 제주교구장), 강정채(전 전남대 총장), 강종호(재경4.3유족회장), 고희범(전 제주 4.3범국민위 상임공동대표), 권영길(전 민주노총 위원장), 김삼웅(전 독립기념관장), 김상근(목사,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 김석범(재일 소설가), 김세균(서울대 명예교수), 김승호(전 태일 노동대학 대표), 김시종(재일 시인), 김영훈(전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김정기(전 서원대 총장, 4.3위원회 중앙위원), 김종철(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김종배(언론인), 김홍식(명지대 명예교수), 도법(스님, 조계종 화쟁위원장), 도산(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문정현(신부), 문무병(전 제주4.3연구소 이사장), 박병섭(전 상지대 부총장), 박석무(전 5.18재단 이사장), 박원순(서울시장, 전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장), 박창욱(전 제주4.3유족회장, 4.3위원회 중앙위원), 배다지(민족광장 상임의장), 백낙청(서울대 명예교수), 부청하(재경4.3유족회장), 서승(리츠메이칸 대학 특임교수), 서중석(성균관대 명예교수, 4.3위원회 중앙위원), 신경림(시인), 신인령(전 이화여대 총장), 안병욱(가톨릭대 명예교수, 전 진실화해위원장), 양문흠(동국대 명예교수), 유초하(충북대 명예교수), 양조훈(전 제주4.3위원회 진상조사팀장), 원희룡(제주도지사), 윤경로(전 한성대 총장,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장), 윤장현(광주시장), 이만열(전 국사편찬위원장), 이문교(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이삼열(민주평화포럼 상임대표), 이수호(전태일재단 이사장), 이순자(재경4.3유족회장), 이이화(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이철(민청학련계승사업회 상임대표), 이해동(목사, 전 국방부 군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이해찬(노무현재단 이사장), 이해학(목사, 야스쿠니반대 공동행동 한국위원회 상임대표), 임현영(민족문제연구소장), 장영달(전 국회국방위원장), 장임원(민주화운동공제회 고문), 장정언(전 4.3평화재단 이사장), 정동익(4월혁명회 상임의장), 정연주(전 KBS사장), 최열(환경재단 대표), 채현국(효암학원 이사장), 함세웅(신부), 현기영(소설가, 전 제주 4.3범국민위 상임공동대표)(가나다순, 4월 4일 현재)

### ○ 국회의원 고문단

강창일, 강훈식, 권미혁, 금태섭, 김경수, 김경협, 김두관,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선, 김병욱, 김부겸, 김영주, 김영춘, 김영호, 김정우, 김종민, 김철민, 김해영, 김현권, 김현미, 남인순, 노웅래, 도종환, 문미옥, 민병두, 박경미, 박광온, 박범계, 박병석, 박영선, 박재호, 박정, 박찬대, 박홍근, 백재현, 백혜련, 변재일, 서형수, 설훈, 소병훈, 송영길, 송옥주, 신경민, 심재권, 안규백, 안민석, 어기구, 오영훈, 이상호, 원혜영, 위성곤, 유승희, 유은혜, 윤관석, 윤호중, 이개호, 이석현, 이용득, 이원욱, 이재정, 이철희, 이춘석, 이학영, 이훈, 인재근, 임종성, 전재수, 전해철, 전해숙, 정성호, 정재호, 정춘숙, 제윤경, 조응천, 조정식, 진선미, 최인호, 추혜선, 표창원, 홍영표, 홍익표, 황희(이상 더불어민주당), 김광수, 김수민, 김종희, 박선숙, 박준영, 박지원, 이용호, 이찬열, 장정숙, 정동영, 주승용, 천정배, 최도자, 황주홍(이상 국민의당), 김종대, 노회찬, 심상정, 윤소하, 이정미(이상 정의당), 김성원, 송희경, 신상진, 이채익(이상 자유한국당), 박순자, 황영철(이상 바른정당), 김종훈, 서영교, 윤종오, 홍의락(이상 무소속)(4.5. 현재까

지 참여의사를 밝힌 의원 113명)

○ 상임공동대표

김영주(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박용현(한국전쟁유족회 공동대표)  
백미순(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양윤경(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정연순(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주진오(상명대 역사콘텐츠학과 교수)  
허영선(제주4.3연구소 소장)

○ 공동대표

곽노현(징검다리 교육공동체 이사장, 전 서울시 교육감)  
김서중(민교협 상임공동의장,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김성보(역사문제연구소 소장)  
김영호(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종세(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상임이사)  
김주영(한국노총 위원장)  
김창희(서울제주도민회 회장)  
박래군(인권중심 사람 소장)  
오수창(한국역사연구회 회장, 서울대 국사학과)  
이완기(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이호중(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서강대 교수)  
정세훈(한국민예총 상임 이사장)  
정진우(목사, KNCC 인권센터 소장)  
조창익(전교조 위원장)  
한상균(민주노총 위원장)  
허상수(재경4.3희생자및피해자유족회 공동대표)  
혜용(스님, 조계종 사회노동위원장)  
\* 참여단체 결정에 따라 추가

○ 운영위원장

김수열(제주작가회의 회장, 제주도 예술위원장)  
박찬식(육지사는 제주사랑 대표)

○ 분과별 위원회 위원장(잠정)

- 정책기획위원회: 이재승(건국대 법학과 교수)
- 학술위원회: 이영권(제주역사교육연구소장)
- 문예위원회: 배인석(한국민예총 사무총장)
- 대외협력위원회: 이태호(참여연대 정책위원장)
- 법개정 특별위원회: 서중희(민변 과거사위원장)
- 국제사업 특별위원회: 허상수(재경4.3희생자및피해자유족회 공동대표)

○ 사무처장 : 박진우

○ 자문위원

- 추후 위촉

## 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 과제와 방향

### 1) 특별법 개정을 통한 아픈 역사의 '정의로운' 청산과 치유

- 피해 배·보상의 공론화와 제도적 해결 방안 추진
- 불법재판 수형인의 명예회복과 피해 구제
- 주요 책임자에 대한 (상징적) 단죄와 의인현양
- 트라우마치유센터 건립

### 2) 4.3의 봄도 이야기하자 - 4.3의 역사적 자리매김과 정명

- 제주도민을 단순히 피해와 희생의 대상이 아니라 공동체와 역사의 주체로 조명
- 학술적 조명, 문화적 형상화,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4.3 정명에 대한 국민적 합의 형성

### 3) 4.3의 전국화와 세계화

-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완수하기 위해서 국민적인 지지와 참여를 조직
- 미국의 책임 인정과 이행을 위한 국제 활동 적극 추진
- 유사한 아픔을 겪은 나라, 지역들과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교류, 연대

## 주요 활동 내용

- 1) 4.3특별법 개정운동: 배·보상 입법, 신고와 심의 상설화 등
- 2) 70주년 기념주간 사업: 광화문 일대 전시와 공연, 기념행사 등(세월호 주간과 연계 검토)
- 3) 학술사업: 학술연구 과제 제시와 연구 지원, 국내외 학술행사, 연구도서 발간, 강연회 등
- 4) 문화예술 사업: 공연(연극, 거리극, 뮤지컬, 음악 등), 전시(4.3아카이브 순회전 등)
- 5) 미국 책임 문제의 공론화: 미국 및 국제 여론 조성, 미 의회와 국제기구 대상 활동
- 6)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국내외 연대 활동
- 7) 부문/지역별 4.3항쟁 70주년 사업: 4.3역사기행, 종교인대회, 지역별 문화행사나 강연 등
- 8)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 범국민 추진위원 모집

## 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를 출범하며 국민들에게 드리는 글

지금 우리는 역사적인 촛불혁명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습니다. 정의를 세우고자 하는 시민들이 광장에 모여 적폐청산을 외치며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의 승리는 해방 이래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해 온 슬한 적폐들을 청산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적폐의 뿌리는 친일과 분단, 독재로 이어지는 청산되지 못한 오욕의 역사입니다.

이 그늘진 우리 현대사의 출발점에 바로 제주4·3이 있습니다. 국가의 1차적인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인데, 70년 전 제주에서는 국가의 이름으로 3만여 명이상의 국민을 학살하는 대참극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4.3의 비극은 한국전쟁 전후의 대규모 학살과 군사 독재 정권의 인권유린 등으로 되풀이 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이게 나라냐”는 세월호의 절규도 이렇게 잘못된 역사를 준엄하게 청산하지 못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제주4.3의 아픈 과거를 청산하고 치유하는 데 일부 진전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유족과 제주도민들의 지난한 투쟁과 국민적인 연대의 힘으로 반세기가 흐른 2000년 김대중 정부 시절에 제주4·3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진상조사를 통해 국가권력이 무고한 국민을 학살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여 유족과 제주도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4·3평화공원이 조성되어 희생자들을 기리게 되면서 그동안 빨갱이, 폭도라는 오명이 두려워 숨죽여 지내던 유족들은 그나마 어깨를 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명예회복은 과거청산과 치유의 근본인 ‘정의’가 빠진 말뿐인 명예회복이었습니다. 국가의 잘못으로 생긴 피해는 구제되어야 하고, 당시 주요 가해 책임자에 대해서는 범죄 사실을 명백히 밝혀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4.3이 발발한 군정기는 물론 정부 수립 이후에도 실질적인 통제력을 행사했던 미국의 책임도 물어야 합니다. 정의로운 청산 없이 4·3의 아픔은 온전히 치유할 수 없습니다.

4·3은 청산되어야 할 아픈 역사일 뿐 아니라 계승되어야 할 역사이기도 합니다. 4.3은 단지 1948년 4월 3일의 봉기가 아니라 해방 이후 스스로 지역 공동체를 일구고 분단에 반대하며 통일된 나라를 세우고자 싸웠던 과정 전체를 지칭합니다. 분단 이데올로기의 색안경을 벗고 보면 4·3이 곧 촛불입니다. 우리는 4.19나 5.18과 마찬가지로 민중이 주인으로 떨쳐나섰던 역사로서 4.3을 기억하고 계승해 나가야 합니다.

4.3은 동아시아에서 냉전체제가 구축되어 가던 과정에서 빚어진 참극이었습니다.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된 해군기지에 미군함이 들어오고 제2공항을 빌미로 공군기지까지 추진되고 있는 현실은 제주가 또다시 지정학적 대결의 화약고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습니다. 4.3의 역사적 교훈을 생각한다면 제주는 정부가 선포한 ‘세계평화의 섬’에 값하는 동아시아 평화의 전진기지가 되어야 합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참극을 겪고 살아온 이들에게 남아 있는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4.3의 진실과 교훈은 올곧게 전해져야 합니다. 제주도민만이 아니라 온 국민이 나서야 할 문제입니다. 내년 제주4.3 70주년을 앞두고 국가의 잘못으로 인한 아픈 역사를 정의롭게 청산하고 4.3의 정신과 교훈을 되새기며, 정의와 인권, 평화와 통일의 나라로 나아가는 데 모두 함께 나설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 참여단체 (4월 5일 현재)

제주지역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연구소, 제주민예총, 제주4·3도민연대, 꽃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장애인연맹DPI, 제주YMCA, 제주YWCA, 탐라자치연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본부, 제주통일청년회, 제주대안연구공동체, 노무현재단제주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민족문제연구소제주지부, 노동자역사한내제주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본부, 세계섬학회, 민주수호제주연대, 진실과정의를위한제주교수네트워크, 제주민주화운동사료연구소, 전여농제주도연합회, (사)제주문화예술공동체간드락, (사)제주김대중기념사업회, 제주청년협동조합, 제주평화나비, (사)제주씨네아일랜드, (사)한국작가회의제주도지회, 탐라미술인협회, 탐라사진가협의회, 놀이패한라산, 민요패소리왓, 전통예술공연개발원마로, 노래세상원, 풍물패신나락, 전농제주도연맹, 제주지역언론노동조합협의회, 한라대학교총학생회, 4·3과통일을생각하는모임, (사)제주영화제, 기억공간 re:born, 제주생태관광, 제주불교청년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청년회, 제주청소년지도사회, 제주어로노래하는제라진소년소녀합창단, 참교육제주학부모회, 치유와평화를위한그리스도인모임,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제주도연합, 한국여성농업경영인제주도연합, 제주인터넷신문기자협회(64개 단체, 무순)

전국

서울제주도민회, 재경 제주4.3희생자및피해자유족회, 오사카4·3유족회, 도쿄 4·3을 생각하는 모임, 한국전쟁유족회, 노근리국제평화재단, 한국역사연구회, 한국근현대사학회, 역사문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역사학연구소, 노동자역사 한내,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전국역사교사모임, 역사교육연구소,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4.9통일평화재단, 동학혁명실천 시민행동, 한일민족문제연구회, 전태일재단,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대전세종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충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수원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광주전남6월항쟁기념사업회, 대구경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울산노동역사관, 지금여기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원불교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참여연대, 나눔문화,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자유언론실천재단, 새언론포럼, 한국PD연합회, 민주언론시민연합, 한국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 충북민예총, 경기 민예총, 인천민예총, 서울민예총, 대전민예총, 세종민예총, 대구민예총, 울산민예총, 부산민예총, 경남민예총, 전남민예총, 광주민예총, 전북민예총, 강원민예총, 한국민족총연합회, 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태일 노동대학, 전국농민회총연맹,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환경정의, 한국진보연대, 노무현재단, 민족화합운동연합, 한배평화재단, 징검다리 교육공동체, 육지사는제주사름, 제주사회문제협의회, 한국YMCA전국연맹, 인권연대, 인권중심 사람 (80개 단체, 무순)



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

## 육지사는 제주사름 보도자료

사무실: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48-6 jtbc빌딩(dmcc빌딩) 7층

연락 : 박찬식 운영위원장(010-7276-0997) 박진우 사무처장(010-5301-3866)

전자우편 : [cheju4370@naver.com](mailto:cheju4370@naver.com)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jejudo0403/> (1948년 4월 3일)

후원 : 농협 351-0938-9465-23(예금주: 육지사는 제주사름-43범국민위)